

TRADE BRIEF

정혜선 수석연구원(동향분석실) 02-6000-5106, hs.jung@kita.or.kr설송이 수석연구원(통상지원센터) 02-6000-5601, songji.seol@kita.or.kr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iit.kita.net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202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행정부-의회 간 경기부양책 논의가 진전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미국 경기가 회복될 경우,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예고된 만큼 국내 관련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대중국 강경책 및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01. 미국 신행정부 주요 경제·통상정책 전망

- 적극적인 재정투입을 통한 경기회복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기후변화 대응 강조
 - 청정에너지분야에 4년간 약 2조 달러(약 2400억원)를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이는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도 부합
 -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환경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
-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의 일부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상 등 증세정책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감세정책을 시행해 온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는 대비
 - 법인세 인상(21%→28%),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37%→39.6%)을 통해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려는 입장
-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및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강조하는 기조는 기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과 유사

●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국 강경정책’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기조를 유지할 전망

- (대중국 견제) 동맹국들과 공동으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고, 인권, 노동, 환경(기후변화) 등의 분야로 확대하여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보호무역조치)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한 대중국 관세, 232조 조치 등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지속될 전망
- (무역협정) 당선 직후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며, 만약 무역협정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조해온 노동·환경 조항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다자주의와 동맹국과의 신뢰 회복을 통해 미국의 리더십을 재건하고 세계통상질서를 미국이 주도해나가겠다는 입장

바이든 당선자 주요 공약

주요 정책		세부 내용(안)
세계 개편	법인세 인상	(현행) 21% → (개정) 28%
	개인소득세 인상	(현행) 37% → (개정) 39.6% (최고세율 기준)
	해외수익 최저세율 인상	(현행) 10.5% → (개정) 21%
	오프쇼어링 추정세 도입 (Offshoring Tax Penalty)	미국기업이 해외로 일자리를 이전해 생산한 재화·서비스를 미국 내 판매할 경우 연방정부 법인세에 10%를 가산 (연방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28% + 2.8%p(추정) = 최대 30.8%)
	리쇼어링 장려 (Made in all of America)	10% 세액공제 ⇒ 선정기준 : ①폐쇄기업 재활성화, ②경쟁력·고용확대를 위한 시설 개조, ③해외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이전 등
	탄소조정세 도입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세금부과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품목에 대한 추가관세 또는 쿼터 부과
정부 조달	바이 아메리칸 (Buy American)	4년간 4,000억 달러 투입(미국산 제품·서비스 구매) R&D 3,000억 달러 지원
환경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4년간 2조 달러) 전기차 인프라 확충(고속도로 충전소 50만개 설치) 건축물 냉난방시설 고효율화(400만 채 이상에 고효율 시설 도입)
	국제공조 강화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통상	대중국 통상정책	동맹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압박(추가관세 철폐여부 미지수)
	다자통상체제 복원	WTO 개혁·재건
	무역협정	신규 무역협정 추진계획 없음(국내 경제재건에 우선 집중)
	탄소조정세	2025년까지 탄소조정세 법안 도입
반독점	거대 IT 기업 규제	독과점, 개인정보침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제 강화
의료	오바마케어 부활	미국인 97%를 국가 건강보험에 가입
외교	이란과의 협상 복귀	이란과의 협상 재개 및 주변국과의 공조 중시
이민	이민자 보호 정책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중단, DACA 개선 외국인 임시비자 발급제 개선 및 숙련노동자 이민 증대

02.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총괄) 미국 경기회복 및 친환경 분야 수요확대, 규범에 근거한 통상정책(rule-based)은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마중 분쟁, 환율 및 유가 변동,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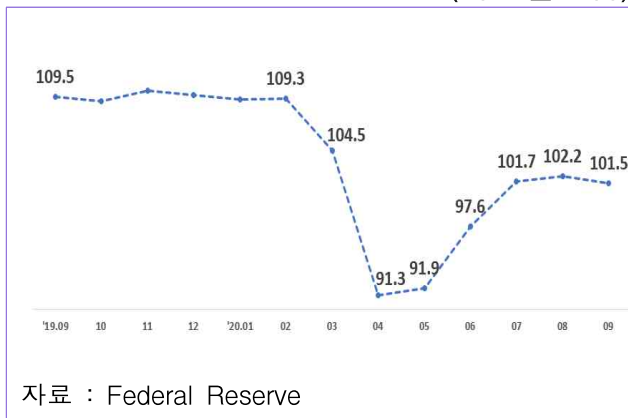
바이든 당선에 따른 우리 수출환경 변화

긍정적 요인	부정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미국경기 회복 → 미국 내 수입수요 증가, 원유 수요 증가로 유가 상승 시 수출단가 회복 ▶친환경 관련 품목 수출증가 기대 ▶과도한 무역제한조치(232조 등) 지양 ▶다자무역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달러화 약세로 원화 절상 압박 ▶이란과의 외교대화 재개로 경제제재 완화 가능 → 유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 ▶미중 분쟁 영역 확대(환경, 노동, 인권 등) ▶보호무역 지속, 탄소조정세 도입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 강화로 미국산 구매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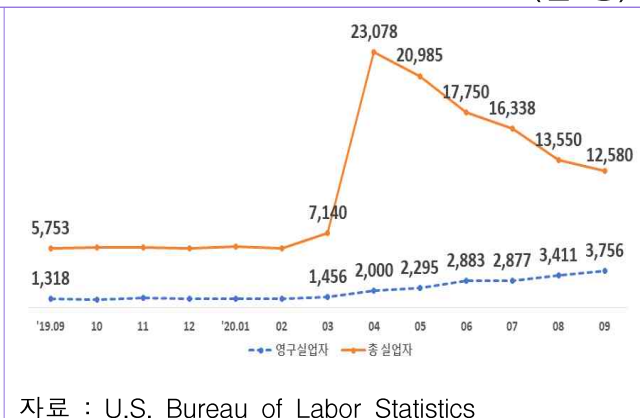
- (경기회복)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기회복 시 우리 수출에 긍정적 영향

- 올해 3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행된 경기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일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생산, 고용 등 주요 부문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 필요
- 총 실업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구실업자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생산지표 회복이 둔화

미국 산업생산지수 추이
(2012년=100)



미국 실업자수 동향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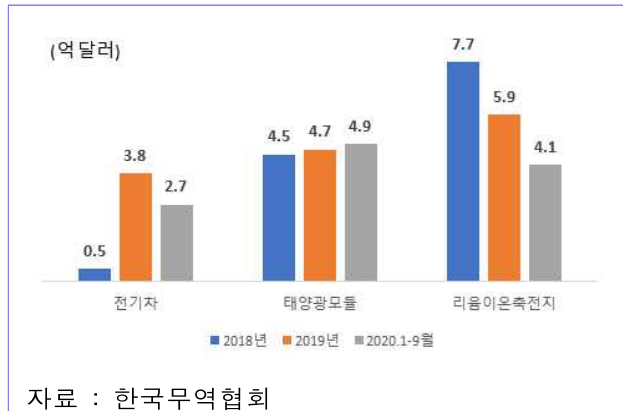


● (유망분야) 친환경·재생에너지 부문의 수출확대 기대

-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친환경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 확대 전망

– 바이든 행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4년간 2조 달러)와 전기차 인프라 확충, 관련 R&D 지원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

對美 친환경 관련 주요품목 수출 동향



바이든 당선자의 친환경 관련 공약

분야	주요 내용
친환경 인프라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net-zero) 달성 친환경인프라 구축에 4년간 2조 달러 지원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 건축물 냉난방고효율화 등 친환경에너지 R&D에 4년간 4천억 달러 지원
협력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 (환율) 바이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달러화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당분간 원화는 절상압력을 받을 전망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미 달러화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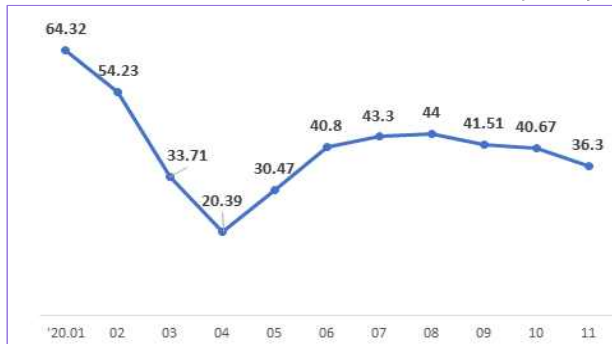
정책	정책 경로	달러 가치	
대중국 정책	정책기조는 유사하나 트럼프에 비해 충돌 강도는 약화될 전망		-
재정정책	증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추가경기부양책과 보건(오바마케어 확대)·기후변화(인프라)·교육·주택 등 다방면의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적자 확대		-
통화정책	(美) 제로금리 유지 vs (EU, 日) 완화적 통화정책		-
중장기 전망	적극적 경기부양으로 미국 경기 회복 및 경제활동 정상화	+	

주: + 달러 강세, - 달러 약세

● (유가) 미국 경기회복 및 석유산업 규제(연방소유 토지 내 신규 시추 금지)로 국제유가 상승 시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 주요품목의 수출단가 회복에 긍정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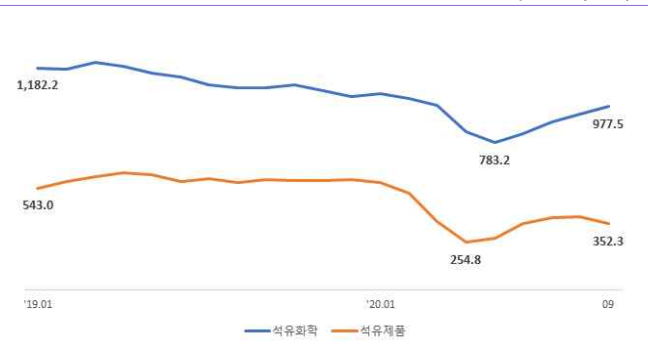
- 단, 중장기적으로 이란과의 외교적 대화 재개로 국제사회의 對이란제재 완화가 이뤄질 경우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최근 국제유가(두바이유) 동향
(달러/b)



자료 : petronet

한국의 석유화학·석유제품 수출단가 추이
(달러/톤)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통상)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공약에 포함된 미국산 우선 구매, 국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외국 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은 국내 산업 보호 정책으로 외국과 무역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대중국 강경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정책 또한 현재의 보호무역적인 기조가 지속될 전망으로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국내에서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보호무역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철저히 대응할 필요
- 또한 대미 수출·현지투자 기업들은 ‘탄소조정세’(2025년까지 도입) 등 친환경 정책의 추진 현황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비해야 함